

광주·전남 진출한 대형마트·SSM 50곳

3년간 3조 벌어 지역환원은 60억뿐

공익사업 지원 0.2% 불과... 지역민 고용도 저조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등 광주·전남지역에서 영업 중인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최근 3년간 수익이 약 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이 지역 내 공익사업에 투자한 액수는 60억원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26일 광주시와 전남도로부터 제출받은 '광주·전남지역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광주지역 29곳과 전남

21곳 등 모두 50곳의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벌어들인 수익은 모두 2조9525억원이다.

연도별로는 2010년 1조440억원, 지난해 1조825억원, 올해 8258억원이다. 광주에서 매출이 가장 높은 곳은 이마트 광주점·봉선점·광산점 등의 순이었다. 전남에선 홈플러스 순천점과 이마트 순천·목포점 등의 순이었다.

이들은 경기 침체 속에서도 한 해 평균 1조 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지역 기여도는 매우 인색한 것

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지역 내 공익사업에 지난 3년간 투자한 금액은 전체 매출의 0.2%인 59억1300만원에 그쳤다. 특히 지역 농산물 구매에 쓴 돈은 전체 매출의 20% 수준인 60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역 농산물 구매 비율이 50%에 달하는 농협 하나로마트와 비교되는 대목이다.

지역민 고용 인원도 모두 3879명에 불과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 가량이 비정규직임을 감안하면, 대형 마트를 대표하는 한국체인스��어 협회가 지난 20일 "대형 마트가 점포당 평균 500~600명을 고용한

다"고 주장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낙연 의원은 "막대한 수익을 내는 대형 마트와 SSM이 벌어들인 수익의 대부분이 본사가 위치한 수도권으로 쏠린다는 증거"라고 지적하고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재래시장과 중소상인의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지역경제엔 훨씬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이달 초부터 보름간 광주시·전남도와 함께 광주·전남지역 50개 대형 마트와 SSM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라며 "광주에서 영업 중인 홈플러스는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공명선거 담화문 발표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26일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지실에서 공명선거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선거위는 좌우, 보수와 진보, 여야, 무소속을 가리지 않고 엄정중립의 자세로 이번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부정과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시 상대 행정·민사소송 사흘에 1건

3년간 연평균 100여건

광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평균 3일에 1건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서정성(민주·남구2)의원은 26일 광주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최근 3년간 한 해 평균 100여건의 행정·민사소송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변호사

비용이 연 평균 1억원 넘게 집행되고 있다"면서 허술한 행정집행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광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건수는 지난 2010년 123건, 2011년 115건, 올 들어 9월 말까지 95건에 달한다"며 "한번 소송이 제기되면 일반적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소송 건수가 평균 50건에 이르러 장기간 소송에 따른 재판 비

용과 행정적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행정을 집행할 때 법률 검토를 허술하게 하기 때문에 소송이 빈번하다"며 "예산과 인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집행 전에 각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순천의료원 병원내 비리 만연”

“영광원전 가동 멈춰라” 남구의회 결의문 채택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전남도 출연기관인 순천의료원 노조가 업체로부터 7000만원가량의 리베이트를 받아 노조원들에게 나눠주는 등 병원 내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는 26일 전남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순천의료원 리베이트 관행과 직원 간 상납 등의 비리를 지적했다.

정영덕 의원(민주·무안)은 “순천의료원 노조는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외부 장의차량 운행 1건당 9만원을 리베이트로 받아 모두 7000만원을 쟁했다”면서 “이 돈으로 50만원권 상품권을 구입한 뒤 노조원 140여명에게 나눠줬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순천의료원에는 2대의 장의차량이 있는데, 장의차량 운전원

이 노조위원장에게 당선돼 1대의 차량운행을 중단하면서 외부 용역업체를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 용역업체와 노조 사이에서 검은 돈이 오고 갔다는 것이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장례식도사들이 유족에게 구제 A납골묘를 소개한 뒤 해당 업체로부터 30~40만원을 리베이트로 받는 방법으로 400만원을 챙겨 병원 B과장에게 상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 순천의료원을 감시해야 할 전남도 감사관이 현재까지 이 병원의 감사직을 맡는 등 전남도의 감사 기능도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도의회 한 의원은 “과거기관의 감사로 등록돼 있어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비리가 잇따라 터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남구의회는 26일 영광원전가동 중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남구의회는 이날 열린 제19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에서 “찾은 고장과 품질검증서 위조 부품대량사용으로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안전성에 대한 믿음이 상실됐고 주민 불안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며 “영광원전 1~6호기의 가동을 즉각 중지하고 국제적 수준의 안전성이 확보된 이후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은 전 국민에게 즉각 사죄하고 책임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즉각 해체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 감시기구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청렴도 4등급 전국 최하위권

광주시, 시·도 교육청 나란히 3등급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전남도가 14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광주시도 8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6일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전남도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6.90점으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권인 14위(4등급)로 조사됐다. 광주시는 7.21점을 받아 8위(3등급)를 기록했다. 지난해에 비해 전남도는 한 단계 올라섰지만 광주시는 네 단계 떨어졌다.

광주시교육청(6.60)과 전남도교육청(6.55)은 10위(3등급)와 11위(3등급)로 나란히 하위권을 기록했다. 광주시교육청은 2011년도에 비해 한단계 올라섰고, 전남도교육청은 세단계 내려앉았다.

시 단위 기초단체 중에서는 순천시(8.12점), 광양시(7.86점)가 각각 2등급을 기록했다. 나주시(7.65점), 여수시(7.44점)는 3등급 그리고 목포시(7.39점)는 4등급이었다.

군 단위 기초단체 중에서는 진도군(7.96점), 함평군(7.86점), 완도군(7.

85점), 강진군(7.84점), 장성군(7.83점)이 2등급을 차지했다. 영암군(6.95점), 화순군(6.57점)은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이었고, 특히 화순군은 최하위였다.

구 단위 기초단체 중에서는 광산구(8.08점)가 3등급을 받았으며, 남구(7.70점), 서구(7.69점), 북구(7.55점)는 4등급 그리고 동구(7.43점)는 5등급을 각각 받았다.

교육지원청 중에서는 구례교육지원청이 8.53점으로 5위(1등급)를 기록한 반면, 광주 서부교육지원청은 6.

67점(5등급)으로 꼴지에서 3번째를 기록했다. 지방공사 중에서는 여수광양항만공사 2등급, 광주도시공사가 7.73점(4등급)을 각각 기록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법무부가 청렴도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했다. 특허청·국방부·중소기업청·외교통상부·문화체육·산림청은 4등급을 받았다.

수사·단속·규제기관 중에는 검찰과 경찰이 5등급의 불명예를 안았고, 국제청이 4등급을 받았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조사에는 민원인 16만854명과 공공기관 직원 6만6552명, 정책고객 1만5491명이 참여했다. 조사는 부패경험과 부패위험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부패사건이 발생하거나 평가 과정에서 신뢰도 저해행위가 드러날 경우 감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세계수영선수권 조례안 원포인트 본회의 처리될 듯

광주시와 시의회가 진통을 빚었던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위원회 지원조례안'이 27일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광주시와 시의회는 이날 오전 이병록 행정부시장과 조호권 광주시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위 지원조례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의회는 의회 경

시와 일반적인 밀어붙이기식 절차 진행, 소통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부시장이 공식사과와 재발방지책을 약속하면서 27일 오전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광주시의회 조오섭 운영위원장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에 대해 시의원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대회 유치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의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대출금리:연5.5%~ 대출금액:1,000만원~8,000만원

공무원 대출

과다대출·캐피탈·저축은행·대부업체의고금리를 이용중인 공무원을 위한 연5.5% 대출

이런분은 꼭!! 연락주세요

- 과다대출로 추가대출이 어려운분
-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실 분
- 카드론 현금서비스를 많이 사용하는분

현재의 부채상황을 리모델링 해 드립니다

리모델링전		
부채현황		1년이자비용
농협중앙회	70,000,000원	4,600,000원
씨티은행	15,000,000원	2,100,000원
지역농협	10,000,000원	1,170,000원
상생카드론	9,000,000원	1,880,000원
대부유저축	8,000,000원	2,800,000원
SC저축은행	37,500,000원	11,200,000원
솔로몬 저축	15,000,000원	4,485,000원
대부업체	20,000,000원	7,800,000원
총부채	180,450,000원	36,035,000원

리모델링후		
부채현황		1년이자비용
농협중앙회	100,000,000원	6,750,000원
국민은행	40,000,000원	3,200,000원
씨티은행	50,000,000원	4,500,000원
총부채	190,050,000원	14,450,000원

에 시 : 행정6급이고 연봉이 5,000만원인 공무원의 경우입니다.

부채 리모델링 전 연간 이자비용이 3,600만원이었으나 리모델링 후 연간 이자비용이 1,445만원으로 줄어들이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본 실제 사례입니다 부채리모델링에 관심있는 분은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연5~15% 연체 추가비용 없음

하나로 채무통합 011-705-2230

등록번호 : 2011-3430067-25-5-00028 주소 :대구 서구 평리로 215, 302호

운명철학

人間の 길흉화복이라는 것이 과연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일까? 또는 운명적 접지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후천적 노력과 기회로 강호의 영웅호걸이 탄생되고, 21세기 현대문명아래서도 죽한기 제대로 못먹고, 신음하는 노후인생과 빈병들은 정녕 노력을 안해서였을까?

여기서 엄청난 사실을 발견할수 있다! 자신의 분수(운명)을 모르고, 분마처럼 날뛰면서 청춘과 일생을 허성당사한 결과는 어떠한가? 두번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의 흐름에서 참으로 선천과 운명적으로 부여받은 스스로의 복덕과 관운 재운 부부 자식 학운 건강등이 자신의 숙명관에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참고점점 해보는 것이 지혜있는 삶의 방법입니다.

※단 맞지 않으면 무조건 무료 중국, 대만, 대한민국 자미두수 대가!

경천동지할 비술인(천문 자미두수)로 수십년을 요달한 경지에서 인생길을 통쾌하게 안내함. 역술과 동수지리 참선의 길 기로부터 무료강의의 무료 개인지도 자격제한 없음(무속인, 역술인 환영)

감정강의장소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95-2 (광주대 상류 소재원 주차장 아래 하천변) 철학연수원(진짜곰탕집)

TEL 061-383-7222 HP 010-4178-8830

강사 柳無山居士

Han-Mi Gold 한미금거래소

금맥을 캐나라!

금거래 비즈니스가맹점을 모집합니다.

한미금거래소는 대한민국 최고의 귀금속 브랜드 골드스토어를 통해 혁신과 신뢰를 바탕으로 도약하는 회사입니다.

사업장점>

1.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
2. 전문지식이 없어도 1주 본사교육으로 창업가능
3. 자금 회전이 빠르고 안전
4. 지식경제부가 승인한 '조세특례범 106조 5항'에 의거 이익 창출
5. 지역 영업권을 확실히 보장(계약서에 명시)

가맹 문의

02)542-4611

www.hanmigold.co.kr